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간의 관계*

The Relations of Parenting Behaviors Perceived by Children to Children's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부교수 도현심**
박사과정 김민정
박사과정 박보경
박사과정 황영은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Doh, Hyun-Sim

Doctoral Course : Kim, Min-Jung

Doctoral Course : Park, Bo-Kyung

Doctoral Course : Hwang, Young-Eun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of parenting behaviors perceived by children to children's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s with a sample of 301 6th-graders(161 boys and 140 girls) and their teachers(N=10). The children answered questionnaires regarding parenting behaviors such as physical punishment, psychological control, and responsiveness. Children's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s were rated by their teachers. Boys showed higher overt aggression than girls. Children were more aggressive when they perceived that their parents used more physical punishment and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y were less responsive. Children showed more prosocial behaviors when they perceived that their parents used less physical punishment and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y were more responsive. The more aggressive the children were, the less prosocial they were.

▲주요어(Key Words) : 공격성(aggression),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s),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s)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의 양육행동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

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현재의 발달뿐만 아니라 먼 훗날의 발달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해볼 때, 유아기 이후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에게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영아기를 지나면서 아동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발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자녀의 감정

* 본 연구는 2004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도현심 (E-mail : goodparents@hanmail.net)

이나 느낌을 수용하고 논리적 설명으로 자녀를 이해시키며 애정적인 부모의 자녀들은 자신감이 있고 성취지향적인 경향이 있었다(Crockenberg & Litman, 1990). 반면에,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며 온정적이지 못한 부모를 둔 아동들은 정서적으로 불행함을 느끼며 위축되고 새로운 경험에 무심하며 낮은 자아개념을 나타내었다(Coopersmith, 1967).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여러 발달적 측면 가운데 특히 아동의 또래관계와 관련시켜 활발히 연구되어왔으며, 주로 부모의 온정이나 애정, 반응성, 거부, 강압, 통제, 학대, 허용, 방임 등과 같은 양육행동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김지신, 1996; 박성연, 2002; 박혜경·박성연, 2002; 손승희·이은혜, 2004; 신혜영·최해림, 2003; 장영숙·강경석·김희정, 2003).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가 온정적, 반응적, 자율적일 때 자녀의 사교성, 주도성, 친사회성이 증가하는 반면, 부모가 강압적, 통제적, 학대적, 방임적일 때 자녀의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할 때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행동을 보이는 반면, 부모가 자녀를 부정적으로 양육할 때 아동은 부정적 또래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의 다양한 하위요인과 아동의 또래관계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정적 양육행동인 신체적 처벌 및 심리적 통제와 긍정적 양육행동인 반응성으로 구성된다. 신체적 처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벌을 가하는 양육행동(Straus, 1979)을,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경험을 제한하고, 무력하게 하며, 조종하는 양육행동(Barber, 1996)을, 그리고 반응성은 부모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수용적이고, 양육적이며, 인내심이 있고, 민감하고, 지지적이며, 온화한 양육행동(Hart & Nelson, 1998)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처벌, 심리적 통제 및 반응성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인 공격성 및 긍정적 또래관계인 친사회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대표적 또래관계 특성인 공격성이나 친사회성은 또래간 지위에도 영향을 미쳐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거부아로, 친사회성이 높은 아동은 인기아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김윤경·이옥경, 2001). 이처럼,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우선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는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게 하는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아동의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배척, 신체적 처벌, 위협, 강압적 명령을 비롯하여 거부, 무관심, 심리적 통제 및 자녀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자녀의 공격성을 증가시켰다(Barber, 1996; 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 특히 부모의 신체적 처벌과 심리적 통제와 같은 행동은 아동에게 공격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강력한 요인이다(Perry, Kusel, & Perry, 1988). 학교에서 공격성을 외부로 많이 표현하는 아동은 부모가 신체적 처벌을 많이 사용한 경우이며(Sears, 1961), 강압적 처벌은 아동으로 하여금 좌절감을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좌절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나 적대감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에서도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노치영, 1988), 부모가 신체적 처벌을 할 때 이것은 공격적 모델을 제공하여 공격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효정, 1991).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아동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통제를 경험할 때,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고 분노와 슬픔 등 부정적 정서상태에 빠져 공격적이 되기 쉽다(Davies & Cummings, 1994). 즉, 냉정하고 거부적인 태도, 의존성 조장 태도, 제한적 태도, 무관심, 온정성의 부족 등과 같은 양육을 통해, 아동은 적대적이며 공격적으로 성장하기 쉽다(Carson & Parke, 1996; 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국내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할수록 아동은 또래에게 공격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지신, 1996; 이숙·이춘아, 1998).

반면, 부모의 온정성이나 반응성은 자녀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뜻하고 반응적이며 자녀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어머니의 아동은 사회적으로 보다 더 유능하고 또래에게 공격적이지 않았다(Harrist, Pettit, Dodge, & Bates, 1994; Miize & Pettit, 1997). 공격성의 하위유형을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또래에 대한 외현화 공격성은 남아와 여아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의 강압,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아버지의 반응성과 관련되었으며, 남아의 경우에만 어머니의 반응성도 이와 관련되었다. 또래에 대한 관계적 공격성은 남아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성,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강압과 관련이 있었다(Hart et al., 1998).

부모의 양육행동은 또한 아동의 친사회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낸다. 친사회적 아동의 부모는 자녀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자녀가 다른 아동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에 대해 높은 기대수준을 가지는 한편,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정직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동은 가정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부모 역시 자녀에게 그러한 행동을 기대한다. 부모는 이야기나 TV에 나오는 모델들을 통해 협조적이고 서로 나눠주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모습을 일깨워준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동이 보다 동정적이고 관대하며 협조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Mussen & Eisenberg, 1977; Zukerman & Zukerman, 1985). 국내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수용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녀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동의 친사회성이 높게 나타났다(손승희·이은혜, 2004). 이와 유사하게 아동의 친사회성은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지도와는 정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와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김지신, 1996).

최근 국내의 연구들은 점차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아의 경우는 과보호가, 여아의 경우는 거부가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innegan, 1995; Finnegan, Hodges, & Perry, 1998; Kochenderfer, 1996; Rigby, 1993). 국내에서도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태도는 남아의 외현화 공격성을 예측하고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는 여아의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을 예측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손지영·김현철, 2004).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발견되는 성차를 통해, 성에 따라 가족 내에서의 삶이나 대인관계, 친밀감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다르며 나아가 부모-자녀관계는 남아와 여아의 발달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리라 가정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을 주제로 한 연구들에서 부모는 자녀의 성에 따라 자녀를 다르게 양육함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한 국내 연구에서 남자는 여아에 비해 부모를 거부·제재적이라고 지각하였다(노경선·심희옥, 2004). 이처럼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다르게 양육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의 성차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관계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동의 성차를 고려한 연구는 드문 상황에서,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공격성과 친사회성이 상호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친사회성은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 타인을 돕거나 도우려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격성이나 폭력 행동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Crick, 1995). 따라서 친사회성을 자주 보이는 아동은 공격적 행동을 덜 나타내리라 예측되며, 실제로 이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양자간에 부적인 관계가 보고되었다(김지신, 1996).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에서도 외현적 및 언어적 공격성을 자주 나타내는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보였다(하영희·Carolyn Pope Edwards, 2004).

이상과 같이 기존 관련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아동의 공격성이나 친사회성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아동의 초기 발달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는 어머니-자녀

관계에 초점을 두어 연구대상으로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국외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도 1980년을 기점으로 점차 이에 대한 관심이 일어 관련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최경순,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전히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양육행동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연구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한편, 공격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은 주로 남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남아에게 좀 더 흔히 나타나는 외현화 유형에만 관심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외현화 및 관계적 유형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박보경·도현심, 2002; Crick & Grotpeter, 1995; Crick & Werner, 1998; Grotpeter & Crick, 1996).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남자는 여아보다 외현적으로, 여아는 남아보다 관계적으로 공격적이었다(Crick & Grotpeter, 1995). 외현화 공격성은 밀기, 치기, 때리기와 같은 신체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모욕, 헐담과 같은 언어적으로 타인을 위협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적 공격성은 관계를 손상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으로 또래간의 우정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주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Crick,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공격성을 외현화 및 관계적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을 자기 보고로 평가할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쉬운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관계를 제 3자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을 아동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각하느냐가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들(문경주·오경자, 2002; 정문자·김문정, 2004)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아동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의 또래관계는 학급 전체 아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사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또래관계가 아동의 삶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Bee, 1997)인 학령기의 초등학교 6학년 아동과 그들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관계의 대표적 특성인 공격성 및 친사회성간의 관계를 비롯하여 공격성과 친사회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서의 성차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남녀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남녀 아동의 공격성과 친사회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P시의 거주 환경이 비슷한 2개구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 10학급(학교별 5학급씩)의 6학년에 재학 중인 301명의 남녀 아동(남아: 161명, 여아: 140명)과 10명의 교사들이다. 본 연구는 아동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또래관계가 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인 학령기 말기와 동시에 청소년 초기에 속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 조사를 위해, 학교장의 동의 하에 교사들에게 질문지 조사방법에 관해 설명한 후, 아동용 및 교사용 질문지를 교사에게 전달하였다. 아동용은 학급에서 실시된 후 교사가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고, 교사용은 담임교사 한 명이 40여명의 아동 각각에 대해 평가한 후 연구자가 회수하였다. 아동용과 교사용 각각 400부의 질문지 가운데 아동용은 366부, 교사용은 40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301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주를 차지하였고(90.4%),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는 40~44세(56.1%)가, 어머니는 40세 미만(60.1%)이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56.5%와 64.8%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는 자영업과 회사원 및 교사가 각각 40.2%와 25.6%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어머니의 경우는 주부가 전체의 60.5%에 이르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비롯하여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한 세 가지 질문지로 구성되며,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 자신에 의해,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은 교사에 의해 측정되었다. 모든 질문지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평가하는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1)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부모의 양육행동은 신체적 처벌, 심리적 통제 및 반응성 등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처벌과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고, 반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체적 처벌 척도는 Straus(1979)가 제작한 CTS(Conflict Tactics Scales) 중 신체적 폭력(violence)과 관련된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CTS는 합리적 대처(Reasoning),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 신체적 폭력(Violence) 등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9문

항 가운데 심한 폭력(예: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다.'와 '칼이나 흉기를 사용한다.')을 제외한 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머리, 뺨, 팔, 다리, 등 혹은 엉덩이를 때린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다.' 등이 포함된다.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아버지의 신체적 처벌과 어머니의 신체적 처벌 둘 다 .90이었다. 심리적 통제 척도는 언어적 표현 제약(constraining verbal expressions), 무가치감(invalidating feeling), 개인적 비난(personal attack on child), 죄책감 유도(guilt induction), 애정철회(love withdrawal), 변덕스런 정서행동(erratic emotional behavior)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Barber(1996)의 심리적 통제 척도 16문항에 Hart와 Nelson(1998)이 사용한 척도에서 심리적 통제와 관련된 3문항을 추가하여 총 19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아버지(혹은 어머니)는 나에게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다정하게 대하다가도 혼내고, 혼내다가도 다정하게 대한다.' 등이 포함된다. 산출된 Cronbach's α 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9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91이었다. 반응성 척도는 Hart와 Nelson(1998)이 사용한 척도에서 반응성과 관련된 총 5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아버지(혹은 어머니)는 나에게 '인내심을 보인다.', '나의 감정이나 요구에 잘 반응해준다.' 등이 포함된다. Cronbach's α 는 아버지의 반응성과 어머니의 반응성 각각 .72와 .71이었다.

위의 세 가지 양육행동 요인을 측정하는 척도는 원래 부모 보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주어를 '나는...'에서 '아버지(혹은 어머니)는...'으로 수정함으로써,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하였다.

2) 아동의 공격성 척도

아동의 공격성 척도는 Crick(1995)의 공격성 척도에 기초하여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외현화 공격성은 Crick과 Werner(1998)의 공격성 척도에서 5문항과 Crick과 Gropeter(1996)가 사용한 문항 중에서 외현화 공격성에 관한 '싸움을 잘하는 친구'에 관한 1문항을 추가하여 총 6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관계적 공격성은 Crick과 Werner(1998)의 공격성 척도 5문항을 번안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척도는 원래 자기보고, 또래보고 및 교사보고를 통해 평가되도록 고안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운데 교사보고용을 사용하였다. 외현화 공격성의 문항에는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주먹질 한다', '아이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그들에게 때려눕히겠다고 말한다.' 등이, 관계적 공격성의 문항으로는 '어떤 아이한테 화가 나면, 그 아이를 무시하거나 그 아이와 말을 하지 않는다.', '집단 활동이나 놀이시간에 특정 아이들이 자기 집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등이 포함된다. 아동의 공격성 점수는 반 별로 표준화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외현화 공격성이 .89, 관계적 공격성이 .87이었다.

3) 아동의 친사회성 척도

아동의 친사회성 척도는 Crick과 Gropeter(1996)가 사용한 교사보고용 문항들 중에서 친사회성과 관련된 총 4문항을 번안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리더역할을 잘한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등이 포함된다. 아동의 친사회성 점수는 반 별로 표준화 하였으며, 산출된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3.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사보고에 의해 측정된 공격성과 친사회성 점수는 각 학급별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분석

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 변인들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 부모의 양육행동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체적 처벌과 심리적 통제에서 유의한 성차를 나타내어, 남아가 여아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신체적 처벌과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성의 경우, 유의한 성차를 나타내지 않아, 남아와 여아에 대한 부모의 반응성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공격성의 한 요인인 외현화 공격성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난 반면,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친사회성 역시 유의한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즉, 남아는 여아보다 더 높은 외현화 공격성을 보였으나, 관계적 공격성과 친사회성에서는 성에 따라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아버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남아의 경우, 반응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보다 더 반응적이었으나, 신체적 처벌과 심리적 통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의 경우, 세 가지 하위 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서의 성차

	남아(N=161)		여아(N=140)		t
	M	SD	M	SD	
부모의 양육행동					
아버지 신체적 처벌	13.84	4.06	11.81	3.90	4.41***
아버지 심리적 통제	41.15	9.49	35.93	9.01	4.87***
아버지 반응성	13.65	3.01	14.23	2.89	ns
어머니 신체적 처벌	13.54	3.98	11.75	3.68	4.03***
어머니 심리적 통제	40.65	9.57	36.03	8.66	4.36***
어머니 반응성	14.11	2.93	14.37	2.95	ns
공격성					
외현화 공격성	1.68	4.53	-1.93	3.13	7.14***
관계적 공격성	.70	4.20	-.80	4.60	ns
친사회성					
	-.47	3.09	.54	3.06	ns

*** $p < .001$

2.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행동 요인들은 남녀 아동의 공격성 요인들과 대부분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표 2>).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반응성과 외현화 공격성, 어머니의 반응성과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양자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체적 처벌과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지는 반면, 아버지의 반응성과 외현화 공격성, 어머니의 반응성과 남아의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행동의 세 가지 하위 요인들 모두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체적 처벌과 심리적 통제가 높고 반응성이 낮을 때, 여아의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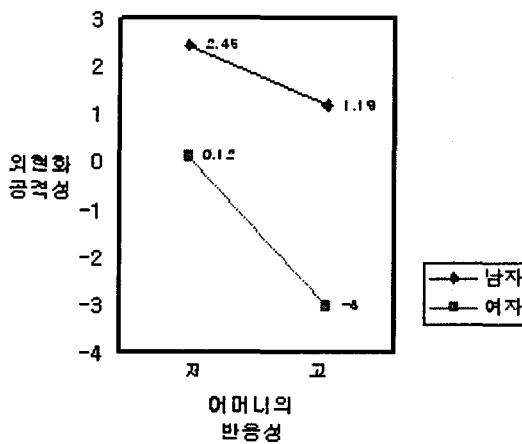
이와 같이, 부모의 반응성과 아동의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발견된 성차를 기초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양자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결과, 아동의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어머니의 반응성만이 아동의 성과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었다(외현화: $\beta = -.63, p < .05$, 관계적: $\beta = -.68, p < .05$). 이때, 아동의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전체변인의 설명력은 각각 20%과 7%였다. 아동의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과 아동의 성의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해보고자, 어머니의 반응성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상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 남녀 집단 각각에서 t 검증을 통해 어머니 반응성 수준에 따른 아동의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반응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외현화($t = 4.37$,

$p < .001$) 및 관계적($t = 5.40, p < .001$) 공격성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남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반응성 정도에 따라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림 1>,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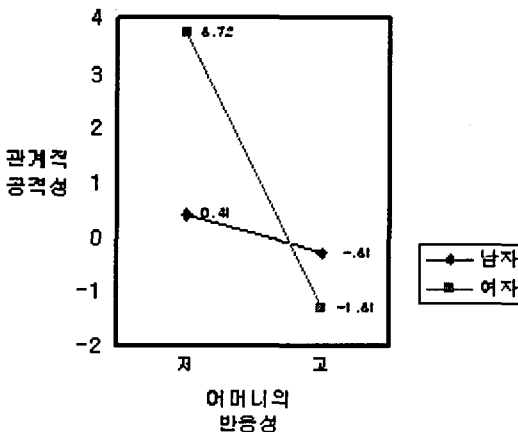
<표 2>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공격성간의 상관 관계

부모의 양육행동	남아		여아	
	외현화	관계적	외현화	관계적
아버지				
신체적 처벌	.50***	.47***	.51***	.47***
심리적 통제	.53***	.49***	.58***	.59***
반응성	-.14	-.20*	-.22**	-.23**
어머니				
신체적 처벌	.45***	.41***	.50***	.43***
심리적 통제	.52***	.48***	.64***	.58***
반응성	-.10	-.15	-.36***	-.3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아동의 외현화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과 아동의 성간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2>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과 아동의 성간의 상호작용 효과

3.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친사회성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행동 요인들과 남녀 아동의 친사회성간의 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표 3>). 남아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성과 친사회성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신체적 처벌 및 심리적 통제와 친사회성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체적 처벌과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친사회성은 낮게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모든 요인들은 아동의 친사회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부모가 신체적 처벌과 심리적 통제를 많이 사용하고 반응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낮은 친사회성을 보였다.

부모의 반응성과 아동의 친사회성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성차를 근거로 부모의 반응성과 아동의 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반응성만이 아동의 성과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beta = .65, p < .05$). 이 때, 아동의 친사회성에 대한 전체변인의 설명력은 7%였다. 아동의 친사회성에 대한 양자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남녀 집단 각각에서 t 검증을 통해 어머니 반응성 수준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반응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친사회성($t = -4.07, p < .001$)을 나타낸 반면, 남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반응성 정도에 따라 친사회성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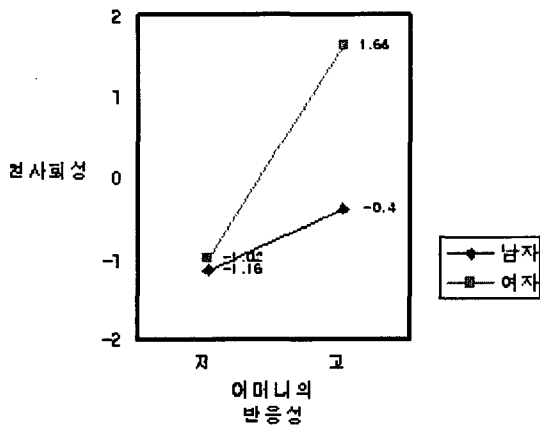
<표 3>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친사회성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양육행동	친사회성	
	남아	여아
아버지		
신체적 처벌	-.31***	-.38***
심리적 통제	-.39***	-.42***
반응성	.15	.34***
어머니		
신체적 처벌	-.36***	-.36***
심리적 통제	-.40***	-.41***
반응성	.08	.31***

*** $p < .001$

4. 남녀 아동의 공격성과 친사회성간의 관계

남녀 아동의 공격성과 친사회성간의 관계 역시 모든 변인들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4>). 남녀 아동 모두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과 친사회성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남녀 아동의 친사회성은 낮게 나타났다.



<그림 3> 아동의 친사회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과 아동의 성간의 상호작용 효과

<표 4> 남녀 아동의 공격성과 친사회성간의 상관관계

공격성	친사회성	
	남 아	여 아
외현화	-.48***	-.53***
관계적	-.42***	-.49***

***p<.001

IV. 논의 및 결론

예비분석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에서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남아는 여아에 비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신체적 처벌과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고 (원지영, 1999; 임지현, 1998)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김희화, 2003)와 일치한다. 남녀 아동의 활동성에서의 차이를 고려해 보건대, 이러한 결과는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남아가 부모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반응성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어머니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더 큰 반응성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결과(정현희, 2003)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학령기 초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가 남아에게 더 큰 반응성을 보이는 것으로 발견된 결과는 이 시기 남아의 심리적 발달이 여아에 비해 다소 느리기 때문에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의존성이 크고, 부모는 보다 의존성을 크게 보이는 남아에게 보다 더 반응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Mussen, 1983). 뿐만 아니라, 학령기에는 여아보다 남아의 정서적 불안감이 더 높기 때문에(오미경·정현희, 1999), 부모들이 남아에게 더 반응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 6학년으로 청소년 초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속

하는 본 연구 대상의 경우, 이 시기에는 남아 역시 심리적 성장이 급등하게 되어 남녀간의 차이가 좁아지기 때문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는 달리, 부모의 반응성에서의 성차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공격성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화 공격성은 높았으나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Hart et al., 1998)와 일치하지만, 동시에 외현화 공격성은 남아가 높고, 관계적 공격성은 여아가 높다는 연구결과들(신미숙, 1997; 이경희, 1998; Berkowitz, 1993; Crick, 1995; Crick & Groperter, 1995; Galen & Underwood, 1997)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는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차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즉, 학령기 초기의 남아는 외현화 공격성이, 여아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표현되는 경향성이 뚜렷하지만, 학령기 말기나 청소년 초기에 진입하면서 사회적 기술이나 사회인지 능력의 습득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관계적 공격성이 많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이 시기에는 관계적 공격성에서의 성차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당시기(gang age)라고 불리는 13세의 아동들은 동성끼리 활발히 집단을 형성하면서, 강한 집단 의식 및 연대감을 경험해 보게 되는데, 도당시기 후 청소년 초기에 이르면 그 집단 내에서 힘을 표현해 보고 싶어 하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욕구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 남녀 아동들은 자신이 학습한 인지 기술들을 활용하게 되고, 신체적 공격이 아닌 파벌 이용이나 압력 배제 등의 간접적 공격 형태를 또래관계 내에서 취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이 시기 남녀 아동 모두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차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친사회성에서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본 연구결과와는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결과들(남정태, 1995; 박경원, 1986; 박미주, 1984)을 비롯하여, 청소년 초기 아동의 도덕성수치에서 유의한 성차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결과(홍성훈, 2004)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 타인을 돕거나 도우려는 행위나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 등에는 남녀 아동 간에 유의한 발달적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녀 아동에 대한 아버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남아의 경우 아버지 및 어머니의 반응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신체적 처벌 및 심리적 통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아의 경우,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신체적 처벌, 심리적 통제 및 반응성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남아는 아버지의 반응성에 비해 어머니의 반응성을 유의하게 크게 지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즉, 유교문화권에서는 여성이 한 가정을 꾸린 뒤,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은 시가에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메카니즘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아들 출산 후 시가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함으

로써(김은실, 2001), 아들이라는 존재가 여성에게 머느리로서 혹은 어머니로서의 역할 기반을 단단히 구축해주는 결과물이며, 그 가계의 대를 잇게 해주었다는 자부심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는 자신의 지위 확보를 공고히 해줄 수 있는 아들에게 특히 큰 관심을 쏟고 반응적으로 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 아동 모두 대부분의 변인들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부정적 훈육방식은 아동의 공격적 행동과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국외 연구결과들(Hart et al, 1998; Maccoby & Jacklin, 1980)과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아동은 적대적이며 공격적으로 성장한다는 국내 연구결과들(이원영, 1983; 이현순, 1982)과 유사하다. 단, 부모의 반응성은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 통제에 비해 아동의 공격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 모두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던 여아의 경우와 달리, 남아의 경우는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만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전자의 경우, 부모의 신체적 처벌과 심리적 통제는 반응성에 비해 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발달시키는 데 일종의 모델링 효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보다 큰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는, 남녀 아동의 특성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남자는 여아보다 공격성을 표현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 여아는 공격적 성향이나 분노감을 말로 표현하는 등 보다 긍정적 전략을 사용하는 성향이 강하다(Maccoby & Jacklin, 1974). 이러한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여아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부모가 이에 반응하고 공감해 줄 때, 충분히 공격성이 작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는 점에서 부모의 반응성과 여아의 공격성간에는 상관이 있으리라 추측된다. 남아의 경우, 강렬하고 충동적으로 공격성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 반응적이거나 지원적인 양육행동과 같이 온화한 양육행동 보다는 신체적 처벌 및 심리적 통제와 더 큰 상관이 있어 보인다.

한편, 아동의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부모의 반응성과 같은 온화한 양육형태와 아동의 성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된 본 연구 결과는 부모-자녀관계의 영향력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된다(박선영·도현심, 1998). 즉,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남아에 비해 여아에게 더 크게 지각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에 비해 여아는 가족 지향적으로 양육되기 쉽고 따라서 동성인 어머니와의 관계가 보다 더 긴밀하고 보다 큰 영향력을 가져 어머니의 온화한 양육행동을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성간의 관계의 경우, 신체적 처벌과 심리적 통제 등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남녀 아동의 친사회성과 부적으로, 긍정적 양육행동인 부모의 반응성은 여아의 친사회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

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수용적이고 온정적이면 아동이 사회성 발달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Bate, Maslin, & Frankel, 1988; Cohn, 1990; Putallaz, 1987)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 여아와는 달리 부모의 반응성과 친사회성 간에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성차는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감정이입적 능력이 부족하여, 온화한 언어적 대화 및 행동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므로, 여아에 비해 부모가 반응적으로 대해 주는 상황을 덜 지각할 가능성이 있음에 기인할 수도 있다. 반면에, 여아의 경우는 남아보다 감정이입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관계적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의 민감하고, 지지적이며 온화한 양육행동들에 의해 친사회성을 강화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아동의 친사회성에 대해 어머니의 반응성과 아동의 성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반응성 정도에 따라 친사회성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위에서 언급한 연구결과(박선영·도현심, 1998)와 유사한 맥락에서 남아가 어머니의 반응성을 여아에 비해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아의 경우에는 동성인 어머니의 온화한 언어적 대화 및 행동에 대해 민감하게 지각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친사회성이 보다 더 발달될 수도 있다. 한편, 양육행동에 있어서 반응성 이외의 신체적 처벌 및 심리적 통제는 남녀 아동 모두가 강하게 지각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이기에 성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남녀 아동의 공격성과 친사회성간에는 다소 높은 상관이 발견되어,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덜 나타내었다. 이는 타인에게 이로운 행동을 많이 할수록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적게 한다는 연구결과(하영희·Edwards, 2004)와 동일한 맥락이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간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성차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은 자녀의 친사회성과, 부정적 양육은 자녀의 공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 특성과 거의 유사하게 관련되었고,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역시 대부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유형간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이 외에도, 자녀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과 아동의 성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드러나, 어머니의 반응성은 아동의 성에 따라 공격성 및 친사회성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교사의 보고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부모의 양육행동을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측정하였던 점에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모

두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선행 공격성 연구가 대부분 남아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남녀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동안 등한시 되어왔던 여아의 공격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본 연구는 중하류층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소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계층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Maccoby & Jacklin, 1980), 중하류층 부모의 경우는 자녀들에게 신체적 처벌과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김광일·고복자, 1987; Elder & Caspi, 1988; Hynam, 1987)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평가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공격성과 친사회성을 측정 하긴 하였으나, 이 외에도 관찰법이나 또래평가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측정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접수 일 : 2005년 03월 15일
- 심사 일 : 2005년 03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6월 14일

【참 고 문 헌】

김광일·고복자(1987). 아동구타의 발생을 조사. **정신건강연구**, 6, 66-81.

김윤경·이옥경(2001).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65-82.

김은실(2001). 출산문화 바꾸기 토론회 자료집. **대구여성회**.

김지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효정(1991).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유아의 공격성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희화(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남정태(1995). 국민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경선·심희옥(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괴롭힘 경험. **아동학회지**, 25(6), 241-257.

노치영(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경주·오정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박경원(1986). 아동의 이타행동의 발달과 역할수행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주(1984). 아동의 이타행동에 있어서 인지 및 정서적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보경·도현심(2002).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 **아동학회지**, 23(5), 51-64.

박선영·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4.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박혜경·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손승희·이은혜(2004).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4), 167-177.

손지영·김현철(2004).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아동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331-358.

신미숙(1997). 아동의 공격성 유형에 따른 성차 및 사회-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혜영·최해림(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 간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95-307.

원지영(1999).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미경·정현희(1999).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5), 171-183.

이경희(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숙·이춘아(1998).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67-77.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현순(1982).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지현(1998). 아동학대와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영숙·강경석·김희정(2003). 유아의 연령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24(4), 41-53.

정문자·김문정(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11-27.

정현희(2003). 어머니 양육행동의 관련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1(6), 75-91.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보가·임지영(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

- 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하영희 · Carolyn Pope Edwards(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 변인 간의 인과관계: 친사회적 행동, 감정이입, 자기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121-133.
- 홍성훈(2004).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의 발달에 관한 연구: EQ, 자아존중감, 도덕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지*, 18(2), 195-210.
- Barber, B. K.(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te, T. E. Maslin, C. A. & Frankel, K. A.(1988). Attachment security, mother-child interaction, an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behavior problems ratings age three yea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99(50), 167-186.
- Bee, Helen.(1997). *The developing child - 8th ed.* New York, NY: Longman.
- Berkowitz, L.(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NY: Academic Press.
- Carson, L. & Parke, R.(1996). Reciprocal negative affect in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y. *Child Development*, 67, 2217-2226.
- Cohn, D. 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s-old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rick, N. R.(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313-322.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Grotpeter, J. K.(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Crick, N. R. & Werner, N. E.(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9, 1630-1639.
- Crockenberg, S. & Litman, C.(1990). Autonomy as competence in 2-year-olds: Maternal correlates of child defiance, compliance, and self-asser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61-971.
-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Elder, G. H. & Caspi, A.(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 Finnegan, R. A.(1995, March).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Links with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1998). Victimization by peer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reports of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076-1086.
- Galen, B. R. & Underwood, M. K.(1997). A developmental investigation of social aggress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89-600.
- Grotpeter, J. K. & Crick, N. R.(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Harrist, A. W., Pettit, G. S., Dodge, K. A. & Bates, J. E. (1994). Dyadic synchrony in mother-child interaction: Relations with children's subsequent kindergarten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3, 417-424.
- Hart, C. H., Dewolf, M., Wozniak, P. & Burts, D. C.(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 Relations with disciplinary style: Relations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 879-892.
- Hart, C. H. & Nelson, D. A.(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yman, I. A.(1987). Psychological correlates of corporal punishment. In Brassard, M. R., Germain, R. & Hart, S. N.(Eds.),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and youth*, 59-68. New York, NY: Pergamon Press.
- Kochenderfer, B. J.(1996, April). *Parenting behaviors and connectedness: Correlates of peer victimization in kindergarten.* Post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Y.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ccoby, E. E. & Jacklin, C. N. (198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A rejoinder and reprise. *Child Development*, 51, 964-980.
- Mize, J. & Pettit, G. S.(1997). Mothers' social coaching,

mother-child relationship style,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Is the medium the message? *Child Development*, 68, 291-311.

Mussen, P. H.(1983). *Handbook of psychology 4th*.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Mussen, P. & Eisenberg, N.(1977). *Roots of caring, sharing, and helping: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San Francisco: Freeman.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Putallaz, M.(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Rigby, K.(1993). School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families and parents as a function of peer relation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4, 501-513.

Sears, R. R.(1961). The relation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 to aggression in middle school. *Th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63(3), 466-492.

Straus, M. 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Zukerman, D. & Zukerman, B.(1985). Television's impact on children. *Pediatrics*, 75, 233-240.